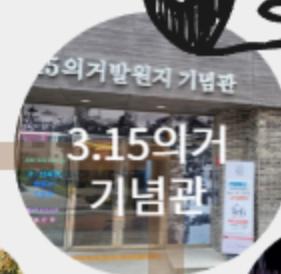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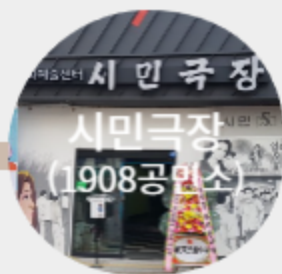


창원시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원도심 투어



운영시간

매주 월 ~ 금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운영대상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누구나

투어시간

1시간 ~ 2시간

신청방법

전화예약 (사전예약 필수)

투어코스

마산 원도심 골목투어

신청방법

무료투어

담당자 : 055-247-0141

투어 참여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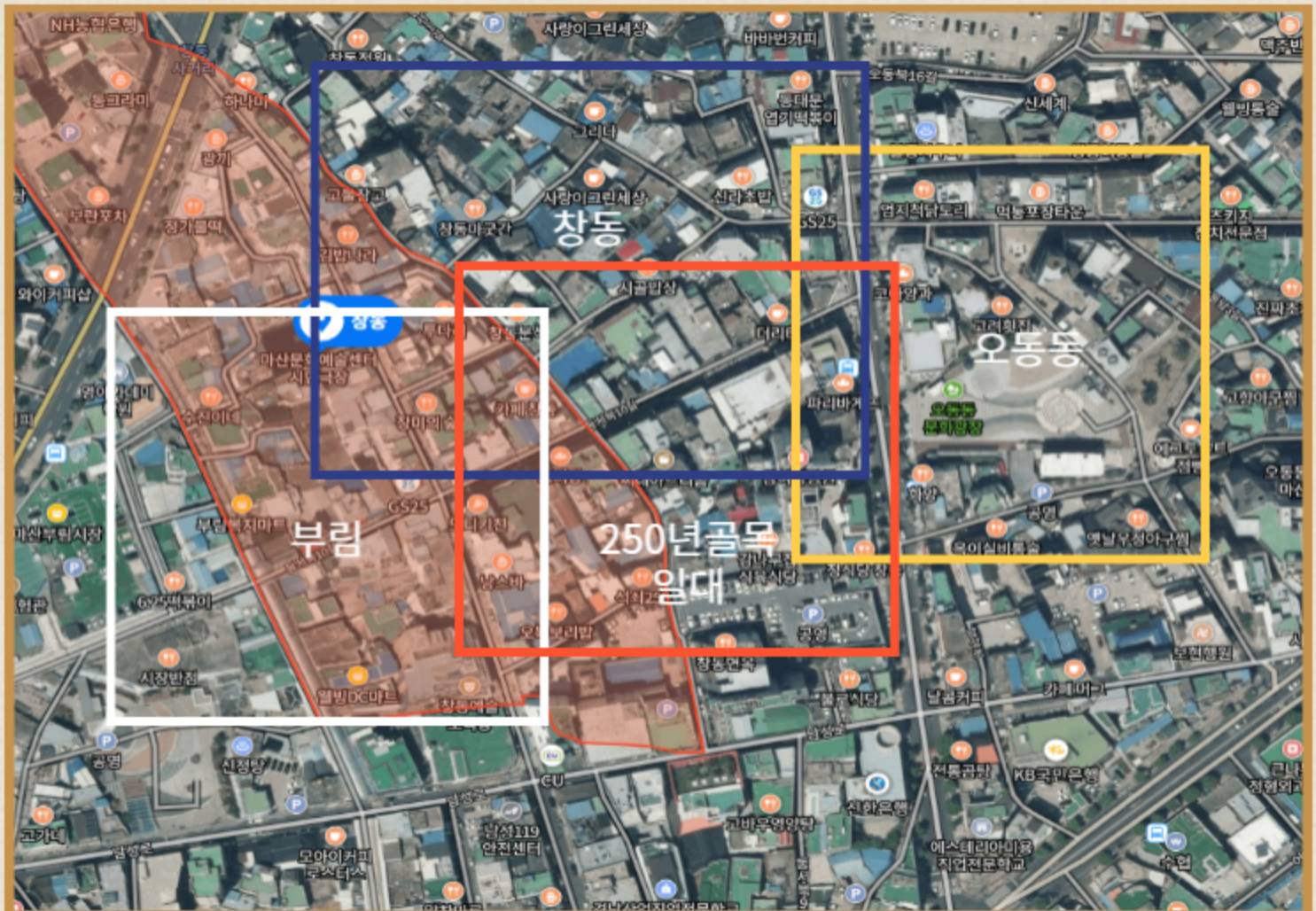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마산의 지명 이야기

조선 초기에 발간한 [경상도 지리지]에 마산포 마산창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마산이란 지명은 고려 후기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그 유래가 포구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원도심 탐방 안내

마산은 조창을 기준으로 원도심이 발달해 왔다. 250년 골목을 기점으로 마산의 역사와 문화, 생활, 상업, 예술 등 각양각색의 모습을 투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접해보고자 한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마산의 역사 이야기

- 1899년 개항 후 마산 일본인 거주민 증가
- 1909년 1월 순종황제 마산 방문
- 1905년 마산선 개통 (1999 경인선, 1904 경부선, 경의선),
- 1912년 진해군항(진해현 이름), 구항상권 수호 투쟁
- 1945년 귀환동포 정착(해방촌)
- 1950년 전쟁 피난민 집결, 연합군 기지,
- 1956년 마산화력발전소 운영(1982년 해체),
- 1960년 3.15의거 (최초의 유혈 민주화 시위, 이승만 하야로 이어짐)
- 1960년대 경공업화 주도
(한일합섬, 경남모직 등 섬유산업, 무학소주, 몽고장유 등)
- 197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 창원기계공단
- 1979년 부마민주항쟁 (10.18)
10.26사건으로 이어짐, 박정희 독재정권 붕괴
‘마산이 일어서면 정권이 바뀐다’
- 1980년대 마산 전성기=창동은 마산의 명동, 한수 이남 최고 지가
- 1990년대 창원시 독립 후 도청 및 정부청사 기관 창원시로 이전
- 1990년대 원도심 쇠퇴 시작: 21세기 들어 공동화가 더욱 심화됨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도시재생
지원센터

창원시 도시재생의 핵심 센터
문화를 접목한 옛 마산 도심 재생의 시작점

창원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11년 4월 28일 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5월 창동예술촌을 개촌하고 2014년 9월 월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015년 행복의창 문화마을 조성사업 2015년 3월 완월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2016년 성호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및 2016년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2016년 3월 부림시장 현대화 사업, 2018년 8월 충무지구 및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9년 소계지구 뉴딜사업, 2022년 석전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1년 월영지구, 경화지구, 합성 1지구 도시재생 사업, 2022년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창원시 지역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를 바꾸고 개선하는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시민극장

창원시 민족 정신이 살아있는
마산 역사와 전통을 잇는 문화공간

마산이 석정으로 불렸던 1908년 마산 민의소로 열린 이곳 시민극장은 근대 마산 시민의 토론장으로 활용되던 곳으로 마산포 읍내 6개 동의 하급행정을 담당하는 역할과 마산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일본인 건축가에게 매각되어 공락관이라는 극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후 광복이 되고 시민극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1995년 7월 브레이브하트 상영을 마지막으로 폐관하고 현재는 마산예총에서 시민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창동
예술촌

원도심 도시재생, 문화로 꽃 피우다

창동예술촌은 옛 마산 원도심권의 잃어버린 상권기능 회복과 지역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5월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간으로 현재 60여개 점포가 입점되어 있으며 연간 다양한 시각예술 기획 전 및 행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과거 1960년대부터 70년대 까지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던 마산의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문신예술, 마산예술흔적, 에콜 드 창동이라는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이우식 집터

마산이 배출한
독립운동가 경영인 언론인

이우식(1891~1966) 선생은 민족운동가 및 애국지사
로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한 다음 상해로 망명하였다.
이우식 선생의 집터는 현재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창동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집터(중성동 136번지)를 이국식으로 꾸민 거리를 조성
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학문당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학문당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현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고 1980년대 가장 호황을 누렸고
2018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여 책을 구매
하기도 하였던 서점으로 60년 넘게 이어져 오고있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김명시장군
등교길

원도심 도시재생, 문화로 꽃 피우다

마산출신인 항일운동가 김명시 장군은 21년간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국가보훈처는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2020년 10월 도시재생 여성친화사업으로 김명시 선생이 집에서 학교가는 길을 벽화로 재현해 놓았음

2020년 창원시양성평등기금으로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획한 도시재생 젠더로 기록하다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거리 시민참여기획단의 도시와 여성 참여로 조성된 거리이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오동동
문화의 거리

마산의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는 오동동 문화의 거리

1970년대 ~ 1990년대 돈과 사람이 넘쳐나던 원도심 도청의 이전과 임대료 및 공실 문제로 원도심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 후 마산 상권이 창원일대 일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조성으로 침체일로로 걸었다. 그 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일대 경관 조성을 통해서 상권활성 및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의 오동동 문화의 거리로 변모하였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오동동 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원도심 도시재생, 문화로 꽃 피우다

2011년 일대에 오래된 주택과 점포를 철거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오동동광장 조성 및 일대 경관 조성 등 사업으로 오동동 문화광장이 세워지고 매년 공연 혹은 시민들을 위한 광장으로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장이다. 주차장과 문화광장을 연계하여 일대경관을 조성하였기에 일대 상점을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이 주차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며 주차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렴한 가격에 주차를 제공하고 있고 도시재생 경관조성 등 창동 최초의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차시설의 경우 74대 장애인2대정도로 수용할 수 있으며 광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이나 축제가 펼쳐져 많은 창원시민들과 관람객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250년 골목

마을을 이어주던 유서깊은 옛 길

조선시대 영조 1760년 마산에 조창이 생기면서 동성, 중성, 오산, 서성, 성산, 성호 총 6 갈래의 마을이 형성되었고 각 마을을 이어주는 길이 놓였는데 이 길은 수백년이 지나며 일부가 남아서 현재 250년 골목으로 불리고 있고 마산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250년 골목에는 오래동안 창동을 지켜온 명소들이 있는데 70년대 인기 분식집 복희집 80년대 카페 해거름, 60년 전통의 고려당 등 오래된 가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조창터

마산 발전의 기틀이 된
세곡을 보관하는 창고

조선후기부터 조창(세금으로 거둬들인 쌀을 수송하기 위해 보관하던 창고) 조창은 세곡으로 거둔 현물을 보관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던 기관으로 마산 조창터는 조선시대 1760년 영조 36년에 대동법 시행에 따라 인근 고을로 부터 거둬들인 세곡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곳이다. 지금은 개항이래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옛 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마산은 조창을 기반으로 발전 된 도시이다.

조창이 있던 이곳은 창원부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1910년 마산부로 변경되어 현 마산합포구 대외동 1-1번지로 이전되면서 이것에 기업전습소를 개성하여 마산부내 및 각 군에서 30명의 여성을 모집하고 6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직기기술을 배우게 했다.

1912년 기업전습소는 상남동 대로 서원천 변에 이축되고 창원부 청사 옛터는 종횡 도로가 구획정리되어 경매에 넘어갔다. 식산은행 마산지점, 마산경찰서 원정(남성동)파출소, 연초전매소, 약방, 도자기점, 잡화점, 유리석유점, 철물점(3) 등으로 나누어 졌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3.15의거
기념관

창원시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1919년 3월 구마산 장터에 모인 수천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3.1 만세운동의 발상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
이후 1960.03.15.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해방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사 건물이 있던 곳에 3.15의거기념사업비도 세겨져 있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시장에 불어온 예술 바람

부림시장 빈 점포를 공예작가의 작업장으로 리모델링한 부림시장 창작공예촌은 도자기 공예 3명, 섬유공예 3명, 한지공예 3명, 현대생활 공예 2명, 금속공예, 칠보공예, 풍선 네일아트 등 기타공예 14명을 포함해 모두 26명 공예작가님들이 입주되었다. 경남을 대표하는 1980년 의류도매시장이 문화예술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술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현재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창동 도시재생 투어

부림문화 광장

창동 문화를 잇는 공간
부림문화광장 공영주차장

구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연
장 및 주차장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한복거리

조선시대 15대 시장

부림시장은 조선시대 15대 시장으로 꼽던 마산장으로
해방 이후 부정공설시장이 부림시장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곳 부림시장의 전체 점포 가운데 30%가 한복점과
포목점이며 한복체험관과 2012년부터 한복축제가 매년
개최 중이다.



창동 도시재생 퀴즈

창동 해설 투어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선물을 드려요~

1. 침체된 창동을 살리기 위해 2011년 마산 ()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아래에서 고르시오.

- ① 재생마을로 ② 르네상스 ③ 도시여행기 ④ 새마을만들기

2. 1908년 마산 민의소로 열린 이곳은 일본인이 공락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고
1995년 7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 ① 도시극장 ② 민의극장 ③ 재생극장 ④ 시민극장

3.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1995년 설립되어 현재 69년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서점
이곳은 어디 일까요?

- ① 학군당 ② 학문당 ③ 학문서점당 ④ 학운당

4. 창동예술촌에 있는 문신의 조형물은 무엇을 오마주하여 제작한 조형물일까요?

- ① 군인 ② 메뚜기 ③ 개구리 ④ 개미

5. 2011년 오동동광장 일대에 오래된 주택과 점포를 철거하고 현재는 야외문화광장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이곳은 도시재생사업 예산 얼마를 투입하여 조성하였나요?

답변:

6. 조창이 있던 지역으로 세곡을 운반하던 길로 오랜 역사적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창
동에 위치한 길 명칭은 무엇일까요?

답변:

7. 창원의 옛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다시 옛 모습을 찾도록
지역을 활성화하는 여러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센터는 무엇일까요?

답변: